吉林省委朝鲜文机关报

吉林朝鲜文报综合新闻

길림신문

2024 년 11 월 21 목요일 음력 10 월 21 일

기사 제보 이메일 : news@jlcxwb.com

吉林朝鲜文报　제 5966 호 · 8 개면　http://www.jlcxwb.com.cn　国内统一连续出版物号：CN22-0030/-CH　邮发代码：11-13

황강 길림예술학원에서 조사연구 시 강조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문예의 번영발전을 촉진하여 길림의 고품질 고수준의 문화강성 건설에 조력해야

▲ 11 월 19 일, 성당위 서기 황강은 길림예술학원에 가서 조사연구를 하고 학교 미술학원에서 소장 서화의 보존 상황을 현지 고찰하고 료해했다.

11 월 19 일, 성당위 서기 황강은 길림예술학원에 가서 조사연구를 진행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습근평문화사상을 깊이있게 실천하고 문예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론술을 참답게 학습, 관철하며 당중앙 20 기 3 차 전원회의와 성당위 12 기 5 차 전원회의의 포치 요구에 따르고 새시대의 새로운 문화사명을 짊어지는 데 초점을 맞추어 문화의 자신감과 자강을 추진하고 우수한 인재를 힘써 양성하며 문예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여 길림의 고품질, 고수준의 문화강성 건설에 조력해야 한다.

길림예술학원은 동북지역의 유일한 종합성 고등예술대학으로서 학교 미술학원은 1,300 여점의 서화진품을 소장하고 있다. 그중에는 정판교, 제백석, 장대천 등 명가의 그림들도 들어있다. 황강은 소장품 전시를 진지하게 관람하면서 학교에서 전람전시활동을 상시적으로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모사(临摹) 학습 기회를 마련해주고 그들의 시야를 더욱 넓혀주며 사고방식을 넓혀주고 기예를 련마시키기를 희망했다. 학교 문물고에서 황강은 소장 서화의 보존 상황을 고찰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이런 작품들은 국가와 민족의 력사문화 기억을 담고 있으므로 보존 조건을 한층 더 개선하고 관리 수준을 제고하여 선조들이 남긴 귀중한 재부를 진정으로 잘 보호하고 잘 전승해야 한다.

길림예술학원은 중로예술대학교련맹의 중국측 선도 대학교이다. 학교의 로씨야 고전유화, 고화복원, 섬유예술작품 련합전시회를 참관한 황강은 로씨야 레삔미술학원 등 국내외 일류 예술대학과의 교류와 상호 참조(互鉴)를 강화하며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의 시대적 가치를 깊이 발굴하고 여러 나라의 우수한 문화 성과의 자양분을 흡수하여 예술 교수와 실천이 더욱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특색이 풍부해지기를 희망했다. 이 학교 미술학원은 고화복원과 표구 전공을 개설하였는데 황강은 전문지식을 잘 배우고 잘 리용하여 문예정품을 전승하고 력사문맥을 이어가는 데 더욱 큰 힘을 이바지하라고 사생들을 격려했다.

황강은 학교 운영 조건과 발전 계획을 고찰 료해하고 나서 통일적인 조률을 강화하고 실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며 학교에서 우수한 문예인재를 더욱 잘 양성하도록 지지하라고 관련 부문에 요구했다.

조사연구에서 황강은 문예창작을 번영시키고 문예혁신을 추진하려면 대량의 우수한 문예인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성의 예술교육 발전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품성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임무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정확한 심미관을 수립하고 고상한 도덕지조를 도야(陶冶)하며 두터운 민족감정을 양성하고 상상력과 혁신 의식을 충분히 불러일으켜 전면적인 발전을 더욱 잘 실현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책을 많이 읽고 좋은 책을 읽도록 학생들을 격려하며 문화의 토대를 끊임없이 튼튼히 다지고 고전작품에서 예술의 훈도와 깨우침을 얻게 하여 예술 창조의 정신적 경지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각급 당위와 관련 부문은 문예일군들이 기층에 뿌리를 내리고 대중과 가까이하고 창작에 몰두하도록 지지하여 우리 성에서 우수한 문예작품이 다투어 용솟음쳐나오도록 해야 한다. 선전문화분야의 지도간부는 문예 창작법칙, 관리법칙을 깊이있게 연구하고 '백락'이 되여야 하며 진정으로 인재를 알아보고 인재를 사랑하며 인재를 존중하고 인재를 사용하면서 인재가 두각을 나타내고 혁신창조에 유리한 량호한 생태를 조성해야 한다.

리위, 조로보, 김육휘가 조사연구에 참가하였다. / 길림일보

길림대학, 2024 년도 국가교재건설중점연구기지에 입선

최근 교육부는 2024 년 국가교재건설중점연구기지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주적 신청과 제 3 측 전문기구의 심사, 교육부 공시를 거쳐 2024 년도 국가교재건설중점연구기지 31 개를 인정했다. 그중 길림대학 교장, 중국과학원 원사 장희가 주도하여 신청한 '고등학교리학교재연구기지'가 국가교재건설중점연구기지로 인정되였는데 이는 길림대학의 첫번째 국가급 교재 건설 플래트홈이며 전국에서 유일한 국가급 리학교재연구전문기구이기도 하다.

국가교재건설중점연구기지는 국가 교재 건설과 교육 발전의 중대 전략에 봉사하면서 교재 건설 과학화 수준을 추동, 향상시켜 교재 건설, 관리와 정책 제정을 위해 전문적 지지를 제공하고 의식형태 방어선을 든든히 하는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길림대학은 교재기지 건설을 크게 중시하면서 사전에 계획 배치하고 국가교재건설중점연구기지 선정 표준에 맞춰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등 16 개 학교급 교재건설중점연구기지를 선후로 설립함으로써 이번 리학국가교재건설중점연구기지 신청을 위해 기초를 마련했다.

이번 리학교재건설중점연구기지에 입선된 것은 길림대학 교재사업 성과에 대한 긍정일 뿐만 아니라 향후 교재사업에 더 높은 표준과 요구를 제기했다. 앞으로 길림대학에서는 교재 건설 지지 강도를 가일층 확대하여 리학교재건설중점연구기지의 인솔복사 작용을 발휘하면서 연구, 지도, 자문, 써비스, 전파 등 기능이 일체화된 교재 건설 전문지지 체계를 힘써 구축함으로써 교재사업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도록 지속적으로 추동할 타산이다. / 길림대학

2024-2025 새 빙설시즌 정식 가동

스키애호가들이 오매불망 바라던 2024-2025 새 빙설시즌이 정식으로 가동되였다. 11 월 19 일, 장춘시의 2 대 스키장들인 천정산스키장과 묘향산스키장이 정식으로 개장해 손님을 맞이하였다. / 길림일보

연변의 2 명 작가 준마상 영예 안고 귀향

김영건, 정봉숙 : 이번 수상을 계기로 연변 문학사업의 번영발전을 위해 새로운 기여 할 터

▲ 18 일 저녁, 연변조선족자치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김기덕이 '2024 중국문학 성전 · 준마상의 밤' 시상식에 참가하고 돌아온 김영건, 정봉숙 작가 일행을 맞이했다. / 강내함

광서 남녕으로 가 '2024 중국문학 성전 · 준마상의 밤' 시상식에 참가한 연변의 김영건, 정봉숙 작가가 준마상 영예를 안고 18 일 저녁에 귀향했다.

연변조선족자치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김기덕이 공항으로 나가 맞이했다. 김기덕은 김영건, 정봉숙 작가의 수상을 열렬히 축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준마상은 전국소수민족문학창작 분야의 최고의 상이다. 우리 주의 두 분 작가가 이 영예를 획득하였는데 이는 개인의 문학 성취와 창작 방향에 대한 높은 긍정일 뿐만 아니라 번영발전하는 우리 주 문학사업의 새로운 성과에 대한 남김없는 전시이기도 하다.

김영건작가와 정봉숙작가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생활에 심입하고 인민들 속에 뿌리를 박으며 수중의 필로 자신이 익숙한 생활과 고향을 쓰면서 연변 문학사업의 번영발전을 위해 새로운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변작가협회 주석 최문덕, 부주석 리혜숙과 2 명 수상 작가 그리고 시집 《류신동 산새는 겨울산에서 운다》의 책임편집 박진화로 구성된 대표단은 이번 '2024 중국문학 성전 · 준마상의 밤' 시상식 및 여러 문학 교류 활동에 참가하여 함께 행사에 참가한 작가협회 조직들과 광범위하게 교류하고 중국 소수민족문학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성과 및 시상식과 수상작품의 홍보, 문학 내용 다경로 전파와 융합의 성황을 목격했다.

전국소수민족문학창작 준마상은 중국작가협회, 국가민족사무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가급 문학상으로 4 년에 한번씩 선정한다.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새시대 민족문학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고 여러 민족의 래왕, 교류, 융화를 촉진하며 국가통일, 민족단결을 수호하는 것을 취지로 한 준마상은 모순문학상, 로신문학상, 전국우수아동문학상과 나란히 국가급 문학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전국소수민족문학창작 준마상 심사에서 연변의 작가 김영건이 창작한 시가작품집 《류신동 산새는 겨울산에서 운다》는 시가상을, 정봉숙이 번역한 장편소설 《위씨네 사당》은 번역상을 수상했다.

최근년간 주당위, 주정부에서는 연변 문학사업의 발전을 대대적으로 지지했다. 연변작가협회가 중대한 제재의 중점 작품 지지 프로젝트와 년도 계획출판 도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지하여 문학정품들이 볕을 보고 우수한 작가들이 홍보되고 잠재력이 있는 청년작가들이 발굴되고 양성되는 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준마상 수상 작품인 김영건의 시집 《류신동 산새는 겨울산에서 운다》는 연변작가협회 2019 년 중점 작품 지지 프로젝트에 든 작품이며 정봉숙이 번역한 장편소설 《위씨네 사당》은 연변작가협회 2022 년도 계획출판 도서이다.

/ 김가혜기자

훈춘시, 시민들에게 15 분권 취업 관련 봉사 제공

42 개 기층 취업봉사소 건설

훈춘시는 취업공공봉사제도를 부단히 보완하고 취업공공봉사체계를 건전히 하면서 '15 분 취업봉사권'을 전력으로 구축했다. 현재 이미 각종 기층 취업봉사소 42 개를 건설하여 각 가두, 사회구역 주민들이 15 분내에 린근의 취업봉사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확보했으며 집앞에서 편리하고 능률적인 취업 봉사를 향수할 수 있게 했다.

'15 분 취업봉사권' 사회구역 취업봉사소는 취업 수요 파악, 일자리 정보 집결, 취업 수급 매칭, 취업 능력 향상, 취업 지원, 창업 지도 봉사 등 6 대 봉사 기능을 구비하여 시민들에게 구직, 채용, 직업지도, 정책자문과 각종 보조금 신청 등 원스톱 공공취업 봉사를 제공하며 '온라인 + 오프라인' 다경로로 최근 채용 정보와 최신 정책을 발표해 시민들이 최신 공공취업봉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새로운 취업 형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훈춘시 인력시장은 '15 분 취업봉사권' 봉사소와 협력하여 매주 금요일 고정 시간에 온라인으로 일자리 소개 생방송 활동을 진행하는데 현재 이미 루계로 온라인 일자리 소개량이 연 6,000 차를 초과하였다.

훈춘시는 계속하여 '15 분 취업봉사권' 봉사망을 한층 더 규범화하면서 취업 봉사 복사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15 분 취업봉사권'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취업 안정 업무를 확실하게 추진하고 더 높은 품질과 더 충분한 취업을 촉진해 나갈 타산이다. / 연변뉴스넷